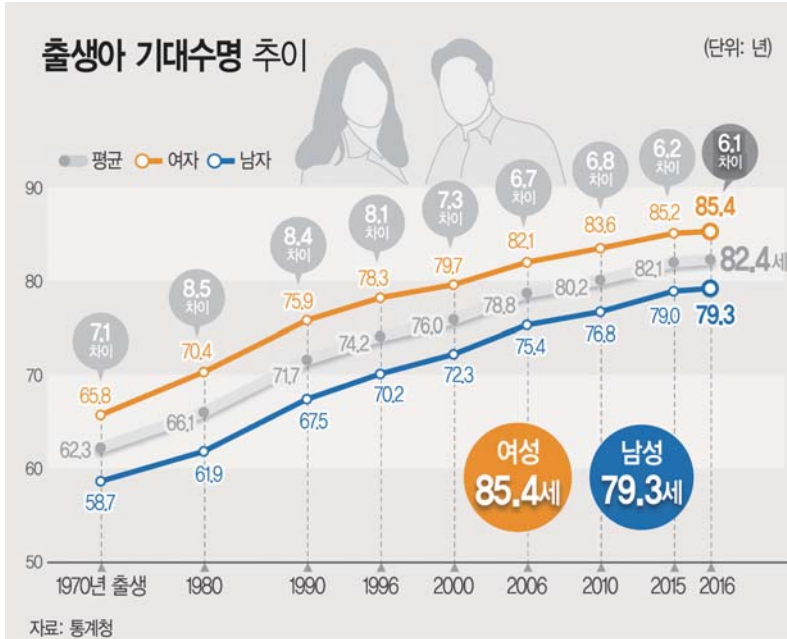


지난해 출생아 수명 82.4년 癌 안걸리면 3.9년 더 늘어

통계청, 기대수명 男 79.3년 · 女 85.4년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2.4년을 살 것으로 예측됐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5명중 1명에 달했는데, 암에 걸리지 않으면 3.9년 더 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평균 64.9세에 그쳤다. 17.5년은 병들고 아픈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60세 男, 앞으로 22.5년 더 산다...여성 4.7년 수명 더 길어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4세였다. 1년 전보다 0.3년(약 4개월) 길어졌다.

남자 아이는 79.3년, 여자 아이는 85.4년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6.1년으로 역대 최저다. 1년 전보다는 0.1년 감소한 것으로, 1985년(8.6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계속 줄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 아이의 기대수명은 1.4년, 여자는 2.3년 더 길었다. OECD 35개 회원국 순위로는 남자 15위, 여자 4위였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OECD 평균인 5.2년보다 0.9년 높

았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전 연령층에서 길어졌다. 기대수명이란 특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뜻한다. 40세 남녀는 앞으로 각각 40.4년, 46.2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60세 남녀의 경우 22.5년, 27.2년 남은 더 누릴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57.9%, 여자 78.4%였다. 이는 10년 전보다 남자 아이는 14.0%포인트, 여자 아이는 10.4%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향후 악성신생물(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3%였다. 5명중 1명은 암으로 숨진다는 얘기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11.8%, 뇌혈관 질환은 8.8%, 폐렴은 7.8%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폐렴에 의한 사망 확률은 5.1%포인트 늘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뇌혈관 질환은 4.3%포인트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3대 사망 원인(암·심장 질환·뇌혈관 질환)이 제거된다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예측된 기대수명보다 7.1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인별로는 암에 걸리지 않

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3.9년(남자 4.9년, 여자 2.9년) 더 길어졌다.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1.5년(남자 1.5년, 여자 1.4년), 뇌혈관 질환이 없을 경우 1.1년(남녀 각 1.1년) 삶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노년 17.5년 아픈 상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 즉 건강수명은 64.9년이었다. 노년 17.5년을 아픈 상태로 보낸다는 뜻이다.

아픈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여자가 20.2년으로 남자(14.6년)보다 더 길었다.

기대수명 중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의 비율은 78.8%로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2년(81.2%)보다 2.4%포인트 줄었다. 수명이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짧아졌단 의미다.

유럽연합(EU)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남자는 전체 기대수명의 81.6%를 건강한 상태로 보내 EU의 80.4%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 여자는 76.4%로 EU 평균(76.0%)과 유사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강기대수명은 68.5년으로 건강수명보다 3.6년 더 길었다. 실제 아픈 상태인데도 주관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보내는 기간이 3.6년 된다는 것이다.

기대수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의 비율은 83.2%(남자 86.7%, 여자 80.1%)로 2012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EU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갑기 등 경증으로도 병원을 자주 찾아 건강수명(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어(건강수명과 건강기대수명) 두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 "두 지표와 EU 평균 격차가 나는 것은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데다 우리의 병원 문턱이 유럽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스



아름다운 X-Mas 크리스탈 소품

보안이 어려운 전통적인 트리를 설치하는 소비자 줄어 들고 있는 반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테이블용 트리, 전구 등 소품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스와로브스키매장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크리스탈 X-Mas 소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보안이 어려운 전통적인 트리를 설치하는 소비자 줄어 들고 있는 반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테이블용 트리, 전구 등 소품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스와로브스키매장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크리스탈 X-Mas 소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주택수요자 2명 중 1명 “내년 주택가격 보합” 전망

하락 전망 응답자 “대출 규제 및 금리상승” 이유 최대

주택수요자 사이에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은 '보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전망심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부동산114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8%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 가격전망 조사에서 보합 응답이 37.70% 비중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 상반기에 가격이 보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19.5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반면 내년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매매가격 상승 전망은 18.72%, 하락전망은 23.99%에 달했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대출 규제 및 금리상승'(39.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 ▲인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17.92%) 순으로 조사됐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29.63%가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실수요자 매매이 포함'이라는 응답도 25.19%로 높았다. 국내 경기회복 전망을 이유

로 선택한 응답도 22.96%에 달했다.

내년 전세가격이 보합할 것이라는 응답도 53.81%로 직전 조사(35.60%) 대비 18.21%포인트 상승했다. 전세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는 21.08%, 상승전망은 25.10%에 달했다.

하락할 것으로 봤던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입주불량과 미분양 증가'(64.47%)를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가격 조정(13.82%)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리스크(6.58%) 순으로 응답했다.

올 하반기 정부가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대책 중 내년엔 과감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라는 응답률이 20.11%로 가장 높았다.

광주지방중기청, 전통시장 체험사진 공모전 시상식

아이들과 함께 전통시장 찾는 가족 고객 증가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난 5일 초·중·고 학생 대상 '전통시장 체험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고 미래고객인 초·중학생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무안북중학교(교장 나기홍)와 광주광역시중학교(교장 윤송자) 등 2개 교와 고가빈 학생(용두초) 등 10명이 시·도 교육감상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등을 수상하였다.

광주시교육감상을 수상한 고가빈(용두초) 학생은 "지난 할로윈 기간에 1913송정역시장에 가서 할로윈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시장에 가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아서 자주 가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발표하였다.

출품자들이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전통시장 봉사활동과 학교 현장체험 관련 사진 등도 있었다고 한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